

좋은 사람에 관한 한 마디

세상은 자신이 살아가는 오랜 시간 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첫째는 가까운 친인척이며, 두 번째가 최고의 친구와 알고 지내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에 더해 세 번째가 있으니 그냥 교체하기에 좋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다름아닌 이런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연해주와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 회장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김이 아니다. 아니 실제로는 우수리스크시에서 그리고 시 경계를 넘어

인 그는 자신의 공적 과 업적에 대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지만 그가 쌓은 공적과 업적은 적지 않다. 이것을 순서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카자흐스탄의 탈다-쿠르간스 카야주에 있는 도스티제니예촌의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카자흐스탄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소비에트 시절 아무르주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다 1976년에 제대했다. 청년 니콜라이는 자동차 재료장에서 근무했는데, 새로운 오토바이를 정말로 사고 싶었고, 자기 개인 용돈을 스스로 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사랑하는 고모들의 주장에 따라(가족 내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반대할 수 없었다) 1977년 톰스크 기술건설대학에 진학하여, 공학기계 기사 전공을 택했다. 1993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가족들과 함께 연해주로 이사했다. 소년시절부터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다. 그는 진정한 노동은 절대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아마도 삶에 대한 이런 태도가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 같다. 그의 형으로서 우수리스크시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사회 활동가였던 미하일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자기 형이 하던 일을 승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 즉시 많은 것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무용단 '아리랑', 한국어 학교, 연세 드신 분들의 모임인 '노인단', 신문, 태권도협회, 고려인 문화센터 그리고 다부터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연령: 59세
 출생지: 카자흐스탄, 탈다-쿠르간스 카야주 도스티제니예촌
 사회활동: 연해주와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수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수여한 '조국 공훈 2등' 훈장 메달과 전 러시아사회위원회가 수여한 '가족과 전통'에 지명된 '유익' 메달
 가족 상황: 기혼, 자녀 2명과 손자들이 있음.

그리고 종종 이런 '선 곳에서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은 유명하다. 그 락, 이웃한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김중헌, 윤상원
 기자와 디자인: 김 이리나

육받은 그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노인단' 회원들은 그의 세심함, 배려 그리고 관심에 대해 한없이 얘기할 수 있다. 말과 행동에서 정직하고 정연하며 자상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의 인생에서 모토처럼 제시될 수 있었다. 모든 지도자들의 지니고 있는 외적인 엄격함의 뒤편에 동정심과 열린 마음이 숨어 있다. '아리랑' 무용단원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가 그렇게 엄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지 않고 무용수들의 성공적인 공연을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이것은 그가 무용단원들을 위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지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2 페이지

우리의 해외동포 오스트리아 고려인들

지난호 고려신문에는 또한 오래전부터 겨울 유럽에 거주하는 고려인 레포즈 휴양지로 그 명 동포들 가운데 독일과 프 성을 떨쳐왔다. 오스트 랑스에 거주하는 고려인 리아 알프스는 산악스키 동포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의 지상천국이다. 옥



실은 바 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이야기를 읽고 자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알프스의 호수, 산봉우리, 시원한 초원과 삼림으로 유명한 나라다. 슈베르트, 모차르트, 브람스, 하이든, 말러, 글루크는 물론 알츠의 황제로 전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시트라우스까지 모두 이곳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받았다.

들이 공존하는 전통적인 몇몇 지역에 소집단을 이루며 살고있는 로베니아인, 하르바티아인, 헝가리인과, 수도 빈에 거주하는 체코인과 유대인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최근에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인들을 더욱 자주 마주치게 된다. 한쪽은 영주권을 받고 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한 부류이고, 또 다른 한쪽은 유학생들이다. 그 중에는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들도 적지않다. 그들 중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수도 빈의 명소로 알려진 빈 국립오페라, 박물관, 극장은 물론이고 과거 거유적들, 희귀한 현대적 건물들, 그밖에 질높은 교육과 높은 생활수준으로도 오스트리아의 명성은 자자하다.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치제도는 연방의회제이며 총 9개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공식어는 독일어이다.

오스트리아는 국민의 97%가 오스트리아인으로 구성된 어느정도 단일 민족국가이다. 슈티리아, 카린티아, 부르겐란트의

타시켄트의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동시에 체조도 해 시(市)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16세가 되면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미르조울루 그백명)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前(레닌명) 타시켄트 국립대학교) 영어문학부에 입학하게 된다. 이듬해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카를 프란츠대학교 슬라브어문학부로 편입한다 (러시아어와 하르바티아어를 전공하면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택했다). 게다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강의와 실습 등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대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학생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2013년 학부를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라츠를 떠나 오스트리아 수도로 간다. 그녀는 빈대학교에서 공통 슬라브어문학부 석사과정에 입학해 러시아어와



2년은 훌쩍 가버렸다. 현재 종합시험은 이미 본 상태이고 6월 말로 예정된 석사논문 발표만 남아 있다. 논문제목은 «이민 환경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러시아어로 씌어진 문학작품 주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다음 3 페이지

좋은 사람에 관한 한 마디

그는 다른 민족들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에서 기초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시작한다. 매년 추수를 감사하며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추석'은 오래 전부터 다민족 행사가 되어왔다. 이 행사에는 고려인, 러시아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우즈베크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연방정부 역시 우테게이인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민족 대표들이 참석한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떻게 그러

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로 우리는 잔치 상에 같이합니다. 상 위에는 우크라이나의 보르시, 카자흐의 베시바르마크, 우즈베크의 플롭, 타타르의 착착이 차려집니다. 각각의 문화에서 최고의 것들을 택할 때 산다는 것이 훨씬 흥미로워 집니다."

러시아연방정부 역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활동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2007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으로부터 '조국 공훈 2등' 훈장 메달과 전 러시아사회위원회로부터 '유익' 메달을 수여받았다. 2011년 '2011년 문예와 과학의 보호자'에 지명되어 '2011년의 사람'이라는 경쟁의 승리자가 되었



다. 작년에는 제2차 연해주 제민족회의에서 연해주 주지사 미클루셴스키에게 그에게 '러시아연방 시민에 대한 애국적 교육에서 적극적 활동을 기리는' 명예 증표를 수여했다. 그의 수상 경력은 여

기에 그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 관해 언쟁을 할 경우 우수리스크에서 그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할 것인 바, 모든 이들은 그를 사랑한다! 인간적 품성에서도, 그리고 자기 업무에서 그가 전문가라는 것에서도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 실로 그렇다! 그가 바로 전문가이다. 자기 업무에서 진정한 명장만이 상이한 분야의 업무를 동시에 완수할 수 있으며,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자선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우수리 시관구 명예시민'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천거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주민들은 시의회에 자신의 평가서를 끝없이 제출하여, 그 수가 이미 3천 5백 건이 넘는 수에 도달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소명에 따라 진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발레리아 줄로타레바

우리의 해외동포 오스트리아 고려인들

한인들을 한 곳에 모으다

빈에서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공화국의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스페틀라나 김은 유명하다. 그녀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CIS 출신 고려인»이라는 러시아어권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가 어떻게 결성되었으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 스페틀라나 유리 예브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답해 주었다.

- 우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CIS출신 고려인» 모임은 2011년 가을 탄생했어요. 거기엔 모스크바 기업가이자,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열성회원이며, 재모스크바 고려인 단체 «범민련» 집행부 성원인 아버지 김 유리 레오니도비치의 조언이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는 한국의 문화와 민속 전통에 조예가 깊은 분이세요. 유리 김은 고려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오토렐리 «러시아-한국 2014»에 참가한 바 있으세요. 오토렐리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평양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하는 행사였죠.

정기모임은 연간 2회 이상 갖는데, 주로 자신들의 고충을 털어놓거나 그리운 한국음식과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제게 오스트리아 땅에 사는 우리 동포를 찾는 일을 시작해 보라고 권유하셨고 저는 곧장 그 일에 착수했죠.

막상 시작해보니 모임은 적지 않았어요.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들을 한 곳에 모아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고려인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지인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고려인들과 교류하고 싶어하거나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재 오스트리아와 기타 유럽국가 폐북방에는 73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해 저희는 놀랍게도 «독일 거주 고려인들»이라는 똑같은 모임을 발굴했어요. 그 모임 역시 독일 땅에 거주하는 러시아어권 고려인 열성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고려신문»이 얼마 전 그들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 회원들 서로 교류하면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지만 함께 휴가나 여행도 떠나는데 저희들의 초대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기에 이르렀어요.

두 단체 회원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로 주로 학생이나 유럽 소재 대학을 졸업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예요. 우리가 보존하고 나아가 후세에 전해주고픈 개개인의 소중한 경험이나 전통들을 전수받거나, 한국 말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더 높은 연령대의 참여를 유도하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만간 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제가 빈에서 처음 알게 된 고려인은 동향인 이리나 김이에요. 그녀는 타 시켄트에서 태어나 그곳

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온 경우죠. 어학과정을 마친 후 이리나는 빈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고 현재 외국계 회사 마케팅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리나는 똑똑할 뿐 아니라 뛰어난 미모에 모범적 아내로 남편인 루슬란에게 갖가지 전통적인 맛거리로 기쁨을 선사하고 있죠.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저희 회원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풍요로운 식탁과 마주합니다.

얼마전에는 니콜라이 김의 초대로 그의 모친인 안나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독일에서 온 고려인 친구들과 함께 음력설을 쇠기위해 마련된 자리였죠. 안나 아주머니께서는 25년 전 오스트리아로 오신 분이니 니콜라이의 경우 이곳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을 받고 현재 오스트리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어요. 안나 아주머니는 남편과 티롤에서 살고 있지만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러시아 동물보호 재단에 대한 후원과 자선을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안나 아주머니 덕분에 러시아의 버려진 개들이 오스트리아로 입양돼 새로운 곳에서 믿을 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새 주인을 만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바로 다음날이면 땅 저편 따뜻한 집에서 맞이할 모스크바 출신

체르니쇼프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크림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해 쓰자면 오스트리아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빈에는 가스프롬, 루코일, 스페르방크 외에 러시아 우수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어 이곳 오스트리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러시아 관광객의 경우에도 오스트리아의 스키휴양지 관광과, 수도 빈의 문화여가에 지출하는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빈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산하의 한국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중에 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자선행사와 음악경연대회, 기타 흥미로운 공연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100여년 전 조성된 상황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서로는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려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갑고 고마워요.

빈에는 우리가 지인들과 함께 때때로 들를 수 있는 한인식당이 많아요. 그 중 «서울»식당이 가장 유명하죠.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우리는 보통 한국음식을 준비하죠. 그것이 집밥으로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음식으로 새해와 생일을 즐겁게 맞을

으로써 작으나마 우리 전통의 일부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은 재능있는 각양각색의 흥미진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자의 운명과 걸어온 길은 전혀 달라도 관심사와 삶을 대하는 자세만큼은 닮아 있어요. 한번은 한국인에 관한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민족은 유대인처럼 쉽게 적응하지만 동화되지 않고 대를 이어 풍습을 전수하면서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는 민족이다. 옛것에 충실하면서 새것을 수

용할 뿐 아니라 타민족들의 문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예컨대 돌잔치나 회갑 등이 그리하다.» 나 자신도 인간은 무릇 험난한 여정을 지나 정상에

올라도 자신의 과거를 잊지 말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 문화와 전통과 역사는 전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것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 덕분에 우리는 외세를 견뎌냈을 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익히 알고있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 말고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과 헛갈려 하지 않았으면 해요. 바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거치고, 몇가지 문화가 교차하는 다민족성을 지닌, 거대한 중심을 가진 소수민족인 한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해요. 한인인 우리가 어떤 사연으로 러시

아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된 건지 오스트리아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단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 이국 땅에 있지만 오스트리아와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한데 모아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말이죠.

스페틀라나 김은 놀랄 정도로 멋지고 책임감 강한 5개 국어에 능통한 여성이다. 고려인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능력을 발휘해 고려인 소사이어티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그녀가 속한 대학 내에서도 능숙한 일꾼씨와 자신이 맡은 바를 우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문성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예비석사인 그녀를 대학본부에서 기꺼이 파트타임으로 채용해 유럽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를 맡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담을 마치며 스페틀라나 유리예브나에게 재외동포들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와 보내준 사진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석사논문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기를 기원했다. 물론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CIS 출신 고려인» 모임이 앞으로 더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5월 9일, 오스트리아의 수도에서는 자그마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아쉽게도 스페틀라나 김과 그의 친구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필자는 운이 좋았다. 이웃나라 슬로바키아에 사는 나의 오랜 친구 빅토르 리가이가 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기 때문이다.

포트르 볼코프

스타니슬라프 윤: 인물평

스타니슬라프 그리 고리에비치 윤 - 우수 리스크의 유명 인물. 누군가는 <노인단>(강 제이주에서 귀환한 고 려사람들이 1995년 설 립)의 회장으로 알고 있 다. 누군가는 버스역에 서의 활동으로 기억하 고 있는데, 그곳에서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 예비치는 자신의 업무 를 100% 완수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품소물 의 제1 비서이기도 했 다. 라리사 장을 비롯하 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 운 시절에 도움을 손을 내밀어준 그에게 감사 하고 있다.

이것은 70세의 할머니가 자신과 스타니슬라프 윤과의 인연의 역 사에 대해 얘기한 것이 다. «나는 2007년 장차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 하여 거주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핫산구역으로 옮겨왔 습니다. 러시아에서 임시 로 거주하는 기간이 끝 나갈 때, 나는 거주 허 가증을 받기 위한 스프 랍카를 모으기 시작했

습니다. 신체검사를 받 을 때 방사선과 의사들 은 나에게 결핵병원에 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 니다. 의사들은 나의 폐 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 다. 몇 달이 지나자 약 과 주사의 부작용 때문 에 아들조차 나를 알아보 지 못했습니다. 두통 이 계속되었고, 기억력 은 감퇴되고,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 들은 자신의 책임 아 래 나를 병원에서 데리 터 시련과 고통이 시작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는 치료는 유효이니 2 만 4천 루블을 지불하 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주를 위 한 자료 제출기간이 만 료되었습니다. 나는 왜 늦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민무국으로 가 서 그들에게 연락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그러 나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 다. '러시아를 떠나 왔던 곳으로 돌아 가시오'라는 답변이 돌

아왔습니다. 무엇을 해 야 할까요? 누가 도와줄 까요? 상황은 더욱 힘들 어졌습니다. 나는 사람 들에 대한 믿음을 잃었 습니다. 삶은 의미를 잃 었습니다. 절망으로 인 해 내 손으로 생명을 마 치고 싶었습니다. 위안 을 찾아줄 믿음이 사라 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고 상황은 전혀 좋아 지지 않았습니다. 진단 서가 없으니 정상 상태 로 될 희망도 없어졌습 니다. 우즈베키스탄으 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 능했습니다. 집을 비운 기간 동안 주춧돌과 잡 초로 뒤덮인 구역을 제 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 다. 어느 교회 의 신도가 나에게 스타 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 치 윤을 소개해 주었습 니다. 그는 다정한 마법 사처럼 나를 도와주었 습니다.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무료 로 진단서가 발급되었 습니다. 연해주 연방이 민국 국장 벨로보로도 프가 나를 만나러 왔습 니다. 2014년 나는 불

법적인 상태를 끝마치 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 아왔습니다. 나는 3개 월간 임시체류 허가증 을 받았고, 정식 체류허 가증을 신청했습니다. 머지않아 시민권이 발 급되었습니다. 내가 일 마나 스타니슬라프 그 리고리에비치에게 감사 하는 지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위 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기를 기도합 니다.»

잔인한 1937년에 태 어난 스타니슬라프 그 리고리에비치 윤의 가 족은 1955년에 원동으 로 돌아왔다. 1960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한 그는 편안한 장소를 찾지 않았다. 버스역에 서 일자리를 찾은 그는 업무에 충실하게 일했 다. 사회생활에서도 다 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품소물의 활동가로서 우수리스크 시의 품소물 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일터, 가정생활, 공공

업무를 보며 시간은 흘 러갔다. 그가 해온 일들 은 매우 중요하고 잘 알 려져 있다. 예를 들면,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 예비치는 아무르스카야 거리 63번지 카레이스 키 돔 건립의 주도자였 고, 국제무역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중국시장의 개 창자였다. 그의 활동으 로 우쥬스니마일에 기 념비가 건립되었다. 그 리고 그가 쉽없이 지도 해온 사회단체는 최근 범무부로부터 노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노인 단>(칼리닌 거리 35번 지)으로 정식 인가를 받 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스타니슬라프 윤의 관심 분야는 매우 넓다. 그는 민족문화의 보존 과 고려인 디아스포라 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 이고 있으며, 우리 구역 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들과의 연합사업에도 기꺼이 참가하고 있다. 그가 다른 민족의 대표 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 는데, 아르메니아인 이 쉬한 아라마이소비치 발란과는 이미 20년의 우정을 지켜오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또한 군 대와 법수호기관의 노 동자 병사 베테랑 소비 에트의 위원이다. 거기 에서도 단지 형식적으 로만 등록되어 있는 것 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애국적 교육을 실시하 는 사업을 진행했다.

스타니슬라프 그리 고리에비치의 친절, 큰 마음과 인간에 덕분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국, 북한, 한국, 오스 트레일리아 그리고 독 립국가연합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우수리스크시 와 원동에서 사회활동 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그는 매 우 많은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 중에는 연해 주 주지사 B. B. 미클루 셰프스키와 연해주입법 의회 의장 B. B. 고르차 코프의 감사장도 있다. 게다가 고려인의 러시

아 이주 150주년을 기 념하여 러시아군장교회 관에서 열린 감사콘서 트의 성공은 대부분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 비치 윤의 공로였다. 그 리고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심없이 도 와주었던가! 더구나 가 장 중요한 점은 그가 이 런 일들을 보여주기 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언론홍보를 좋아하지도 않고, 단지 이웃들을 생 각해서 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 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 을 주었다.

이것이 스타니슬라 프 그리고리에비치 윤 이 «우수리스크시의 명 예로운 시민» 호칭에 지원했다는 것이 알려 지자 백여 명의 시민들 이 그의 출마를 후원한 이유이다. «꼬무나르» 편집자에게 가져온 목 록에 서명한 사람들은 T.H. 코투호, A.A. 허가 이, 김홍걸, H.A. 발란, C.T. 구가이를 포함해 모두 120명에 달한다. 올라 레온찌예바

2015년 6월 18일자 «꼬무나르»에 실린 올라 레온찌예바의 기사 «스타니슬라프 윤: 인물평»에 대한 반박

2015년 6월 18일 « 꼬무나르»에는 스타니 슬라프 그리고리에비 치 윤에 대한 기사가 실 렸다.

기사가 나간 후 곧바 로 «노인단»의 간부회 위원들이 우리들은 우 리 도시의 많은 노인들 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 최하고, 대다수의 의견 으로 위 기사에 대한 반 박문을 쓰기로 결정하 였다.

간부회 위원들은 « 꼬무나르»의 기사 올라 레온찌예바의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실들 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1. 기사에는 노 인단이 1955년에 설 립되었다고 쓰여있다. 자신의 이전 인터뷰에 따르면 2004년 4 월 25일자 «고려신문»에서 스타니슬라프 그 리고리에비치는 «노인 단»이 1963년에 창립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러나 그 창립은 내버려

두자. 그런데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가 자신이 «노인단»을 24 년간 쉽없이 지도해왔 다고 얘기하는 것에 관 해서는, «노인단»의 전 임 회장 니콜라이 알렉 산드로비치 김이 강조 하기를 2001년에 자신 이 개인적으로 윤 스타 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 치에게 회장의 전권을 넘겨주었다고 하였다. 그가 13년동안 이 직위 에 있었다면,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는 어떤 24년간의 회장직 을 얘기하고 있는가?

2.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는 아무 르스카야 거리 63번지 카레이스키 동 건립의 주도자가 아니다. 왜냐 하면 고려인문화센터의 창립에는 단지 두 개의 단체, 즉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와 한국의 동북아평화 연대만이 관계하고 있 었기 때문에, 당시 스타 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

치 윤은 여기에 어떤 관 계도 맺지 않았고 어떤 주도권도 행사할 수 없 었다.

3. 정확히 말해서 스타니슬라프 그리고 리예비치는 우쥬스니 마을에 기념비를 건립 하는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 기념비를 제막하기 전까지 러시 아와 한국의 학자들이 우수리스크시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활동 가들과 함께 조사사업 을 벌였으며, 그 후 고 려학술문화재단이 우 슈리스크 시당국의 지 원을 받아 기념비를 건 립하였다.

4.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가 24 년간 지도해왔다고 하 는 단체가 칼리닌 거 리 3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또한 사 실이 아니다. 실제로 «노인단»은 이전 주소 인 아무르스카야 거리 63번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스타니슬라프 그

리고리에비치는 «노인 단» 간부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 고 쫓겨나서, 새로운 단 체를 새로운 주소에 등 록한 것이다.

5.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가 군 대와 법수호기관의 노 동자 병사 베테랑 소비 에트의 위원으로 청년 들에게 애국적 교육을 했다는 것도 완전한 소 설이다. 여기에 한때 «노인단» 간부회의 위원 이기도 했던 군대와 법 수호기관의 노동자 병 사 베테랑 소비에트의 의장 리 B.A가 직접 한 얘기가 있다.

«윤 스타니슬라프 그리고리에비치는 군 대와 법수호기관의 노 동자 병사 베테랑 소 비에트 위원이었던 적 이 결코 없다. 왜냐하 면 그는 노동자 베테랑 이 아니라서 우리의 주 요한 베테랑 조직에 등 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청년들에게 애국

적 교육을 했다는 어떤 사업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단 한번도 그런 사 업을 조직하거나 실행 한 적이 없고, 어떤 학 교에나, 어떤 신병들 앞 에나 나선 적이 없다»

자신의 기사에 대해 보자면, 올라 레온찌예 바는 그 문제를 해결하 는데 무능력을 보여주 었다. 자신이 작가적 입장에 서서, 그녀는 신문 독자들에게 자신 의 개인적인 추론과 실 제 사실을 완전히 왜곡 하는 확인되지 않은 정 보를 소개했다. 윤 스 타니슬라프 그리고리 예비치가 품소물 시위 원회 위원이었다는 사 실에 대해서도 추가적 인 검사와 정보가 요구 된다. 어디에서도, 어느 때에도, 어떤 인터뷰에 도, 심지어 스타니슬라 프 그리고리에비치의 이력이 자세히 설명되 어 있는 H. 쉐의 책 «우리 민족의 자식들» 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심지어 노인들도 그가 품소물 활동가였 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결코 개인적 으로 스타니슬라프 그 리고리에비치에 맞서 지 않는다. 또한 우리 들 자신은 이렇듯 집안 의 분쟁을 세상에 드러 내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다. 또한 우리는 윤 스타니슬라프 그리고 리예비치가 고려인 디 아스포라의 사회적 생 활에 참여해 왔다는 사 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 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많은 공헌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 슈리스크시의 명예로 운 시민» 호칭을 수여 받는데 스스로를 추천 한 사람은 이 호칭에 부 합해야만 하고,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사칭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 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수리스크의 고려 인 디아스포라는 소수 의 디아스포라가 아니 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히 고려인의 나이트 세 대를 대표하는 우리는 «명예로운 시민» 호칭 이 실제로 자신의 자녀 들과 손주들에게 자긍 심을 주고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 여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모든 디아스 포라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 아 닌가.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군대와 법수호기관의 노 동자 병사 베테랑 소비 에트의장 리 바디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 화자치회 산하 «노인단» 간부회 위원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민족문 화자치회 산하 «노인단» 간부회 위원 홍 안톤